

닭고기 수입개방 10년, 유통시장의 변화



이 태 균 차장
(주)하림 해외사업팀

수입 닭고기가 30% 초과시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간 WTO체제 하에 세계 각국간의 무역장벽이 점차 허물어져 가는 추세에서 최근에는 국가간의 FTA 타결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제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즉 산업 대 산업, 또는 기업 대 기업의 경쟁구도 하에서의 생존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육계산업의 경우도 이러한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작게는 당사, 크게는 국내 육계산업도 이러한 세계 변화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육계시장에서 수입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다행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수입닭고기

의 비중이 적었다는 것은 우리 육계산업이 그동안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생존했다는 것이며, 또한 선진국과의 경쟁을 통해 생존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한 국내 업체들간의 경쟁에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러한 점은 향후 개방화 시대에 과연 우리 육계 업체들이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쟁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를 잘 극복해 나갈지 의문시 되는 시점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최근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는 향후 육계산업에 큰 변화의 트렌드를 가져올 전환기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입닭고기의 60% 이상이 미국산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입닭고기가 국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향후 수입닭고기의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각 secto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1. 양축농가 측면

파이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입닭고기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국내 육계산업에서 국내산 제품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산 제품 생산의 첫 단계에 있는 양축농가의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

이제 양축농가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물론 그간 농가와 업체간의 파트너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국내 계열화 업체와 경쟁구도를 형성해서는 안될 것이며 함께 잘 협력해 수입산 닭고기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쟁은 원가 절감 및 생산성 극대화를 이룩해야만 이겨낼 수 있으며, 또한 질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차별화 되어야만 할 것이다.

원가 절감, 생산성 극대화, 질적 차별화의 요소들은 아무런 노력없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완벽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사 설비와 선진화된 경영(관리)방식을 갖추어야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산성 극대화에 성공하지 못해 경쟁에서 쳐지는 양축농가는 향후 산업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영세 양축농가는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에 선진화된 설비와 경영방식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는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소비자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수입닭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입닭고기라 함은 대다수가 원료육의 형태로 수입된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원료육은 다시 한번 국내에서 가공된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것들이다. 물론 현재 소량의 가공품이 수입되고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육계산업의 변화과정과 국가간 닭고기 무역을 잘 살펴보면, 수입닭고기에서 육가공제품의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 선진국, 즉 저렴한 생산 원가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에서의 파이를 계속 늘려나갈려고 할 것이다. 값싸고 맛있으며 품질 좋은 육가공 수입 제품의 증가는 곧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현상일 수 있다.

즉 수입닭고기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한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해 향후 닭고기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열화 업체

우리나라는 선진 육계산업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데, 특히 생산 원가에서 비중이 높은 사료 부분이야말로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사료원료 곡물인 대두박과 옥수수 가격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곡물가격 상승은 곡물을 재배하는 생산국가보다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국가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미국, 브라질, 유럽국가의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

닭고기 수입개방 10년, 유통시장의 변화

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진 계열화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육환경, 가공설비, 경영구조를 이뤄야 할 것이다.

만약 국내 소비 파이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수입닭고기의 비중이 30% 초과시 많은 소규모 육계 업체 및 건실하지 않은 계열화 업체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것이다. 이들은 산업에서 퇴출되거나 건실한 계열화 업체로의 편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계열화 업체는 수입닭고기 비중이 향후 30%~40%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와 경쟁하기 위해 기존 신선시장에서의 차별화와 더불어 수입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있으며, 다양하고 품질 좋은 육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생존에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화 업체와 계약사육농가간의 윈윈(win-win) 전략이 이뤄져야 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계열화 업체와 계약사육농가간의 신뢰가 아주 크다. 이는 곧 산업의 성장을 공유하고, 만약 산업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그 성장이 꾸준하게끔 해주는 바탕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계열화 업체의 발전에 비해 국내 사육농가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열화 업체는 선진 경영방식과 설비에 대한 교육 등 사육농가와

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이들을 선진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일본의 선례와 같이 세계 선진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진 많은 자국 계열화 업체가 산업에서 떠났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열화 업체는 산업 파이를 스스로 줄이는 국내 업체간 경쟁보다는 전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선두 업체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진다.

4. 육계산업 전반

수입닭고기 비중이 30%를 초과한다는 것은 닭고기 소비량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국내 육계산업에는 재앙과도 같은 의미이다. 모든 육계산업 종사자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체 소비 파이를 증가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 업체의 자사제품 홍보와는 별도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산업 전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닭고기의 우수성 및 다른 적색육과의 차별화를 통한 소비량 증가를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육계산업은 산업에 대한 소비 홍보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국내 업체간 경쟁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미래 생존을 위해 모든 종사자가 협력해 국내 닭고기 소비 시장 증대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다. 